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지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최선윤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1:1-17 포기하지 않는 사랑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헌신과 나눔	결단의 찬송 304장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동일찬송가 404장) 봉 헌 / 홍현근 집사, 구은광 집사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박진성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사무엘하 23:31-24:7
선례를 따라서

"믿음의 거울 앞에 서서"

이번 선교/찬양 집회를 통해 나를 돌아 보았습니다.
지난 기간 오래 동안 침잠되었던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섬김의 교회'를 위해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야겠다는 결심도 합니다.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동안 내가 처한 이런 저런 개인적인 상황과 문제들로 인해 주님이 맡겨 주신 교회의 직분과 책임에 백프로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방전된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내 믿음의 분량이 재충전되는 계기였음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증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교우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성도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 모습이 나에게 믿음의 거울이 되어 다짐합니다.
섬김의 교회가 부흥하고 전진하도록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 구 민 집사 -

찬 주간의 기도

"쉽게 저치고 포기하는 우리, 고난도 나의 인내를 만들 줄을 알고 기쁨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버티어 승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로락 내려려하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와 교회의 사명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EM PASTOR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자기의 마음은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니라. (잠언 16:32)
노후까지 즐거워하는 자는 근심보다 낫고

교회와사역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좋은 습관들"

시인 이상현 씨의 '오늘의 생각'이라는 글을 보면, 이 세상은 완성을 위한 인생학교입니다. 배운 만큼 성장하고 깨우친 만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가 저서의 사인회를 가졌는데, 한 주부가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큰 절을 하기에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독자는 "사람만 사람이 아니라 책도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반가운 마음에 그 분에게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반 도서 한 권을 읽고도 책을 향해 큰 절을 올리기까지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사랑하고 있을까요? 이상현 시인은 60세가 되기 전에 1만권의 책을 독파했고, 100권 넘는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심폐기능과 순환기에 문제가 있어 호흡곤란과 저체온증으로, 게다가 부정맥으로 심장은 제멋대로 뛰다 말다를 반복했지만, 독서에 열중할 때만큼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 독서에 더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어두운 약점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어,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첫 시간에 선생님이 풀단지를 교탁 위에 놓고 '배움은 꿀처럼 달다'고 칠판에 쓰신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줄을 서서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꿀을 찍어 먹고 맛을 음미한 뒤, 다같이 '배움은 꿀처럼 달다'를 합창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배움은 '달콤한 양식'으로 각인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로 자신을 가치가 결정된다고 할 때, '책 읽는 습관'은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필자는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의 재산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에는 4가지 주요한 '4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행하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인이려면, 적어도 그 날을 마무리 하는 귀한 저녁 시간에는 가정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온 가족끼리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밤 아닐까요? 인생의 폭풍이 괴롭히더라도, 아름다운 기도와 찬송이 있다면 행복하고 겨울밤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행하고'를 실천한다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섬광처럼 빛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서로 안부를 묻고 아픔을 나누며 도와야 할 이웃들을 위해 의논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1년 열두 달 동안 성경 한 장 읽지 않는 직분자들이 많음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등장해, 성경책은 아예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려면, 하루 한 장 정도의 성경은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들고만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성경이 일러 주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것 아닐까요?

우리는 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지만, 실제로는 수박 겉핥기 식의 형식에 너무 치중하므로, 하나님의 신기하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십상입니다. 교만과 탐심, 그리고 권력에 맛을 들이면서 많은 신앙인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참 진리로 세상에 오신 주님의 성탄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증언하시는 참 진리를 깨달으려면, 천국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책을 누구나 읽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멋진 인생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 『크리스찬 투데이』2018. 12.3 칼럼(이효준)에서 발췌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2월은 "나눔의 달"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1.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구원을 위해 오셨던 구주 예수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2. 금주는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신앙생활의 성숙을 추구하는 주간입니다.
3. 선교찬양집회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4. 각 위원회와 사역팀은 2018년 사역들을 점검하며 결산합니다. 그리고 2019년 사역을 계획해주시요, 이를 위해 이번 주 섬김위원회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5. 오늘 점심 친교 후 목회협력팀 모임을 가집니다.
6. 이번 주 섬김위원회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7. 연말연시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합니다.
12/24 성탄축하예배 / 주일학교 & Youth 성탄 발표회
12/31 송구영신예배 / 성찬예식 / 연말 Oikos 셀모임
신년특별 새벽기도(1/2-1/12, 주중 6시 & 토요일 7시)
8. 17주간 성경일독운동이 Oikos 사역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서로 격려하며 점검해줍시다.
9.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웃, 친구,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천국복음을 전하며, 감사와 풍성한 삶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기도 제 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 섬김 이	주일예배기도	12/9	12/16	12/23	12/30
		최선윤집사	구 민집사	오정은집사	김훈태집사
	금요일예배기도	12/14	12/21	12/28	1/4
		박진성집사	정줄리권사	최내권집사	구은강집사
	주일헌금위원	12/9	12/16	12/23	12/30
		홍현근집사/구은강집사	유덕하집사/최선윤집사		
	주일안내위원	12월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됩시다! / 요한복음 15:1-11

구분의 기준과 방법은 다양하지만,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열매를 기준으로 가지를 구분하신다. 즉,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이다. 가지가 나무와 제대로 연결되어, 별레나 썩은 잎과 가지가 제거 되고 수분과 양분을 정상적으로 공급 받으면 자연히 열매를 맺는다. 그렇다면,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삶이다. 말씀 묵상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는 결코 무거운 짐이거나 부담거리가 아니라 맺어 지는 열매는 유익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회와 성도에게는 큰 기쁨, 세상을 향한 증거, 구원과 믿음의 확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징검이 된다. 말씀으로 다듬어지며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지를 확인하자.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자.

포기하지 않는 사랑 / 고린도전서 1:7-17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이처럼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내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 / 고린도전서 1:7-17

고린도전후서를 쓴 배경을 배경을 전체적으로 살펴 보면 바울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발전된 항구도시였던 고린도에는 각종 문화가 섞여 세속적이고 퇴폐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일년 반 동안 머무르며 성도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고린도 교회에는 점차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내에 분열과 파당이 있었고 근친상간과 음행 같은 성적인 문란이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송사도 마다 않고 성도의 자유를 넘어서는 심각한 방종의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성찬식까지 무절제하게 실시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문제투성이 교회로 전략한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우선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또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며 바로 잡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급작스럽게 더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고린도를 방문했지만 이후에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전하는 거짓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짓 사도에게 현혹된 고린도 교회 성도는 바울의 사도권까지 도전했습니다.

이만하면 포기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고린도의 성도에게 다시 서신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관하여 정당한 해명을 하며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설 것을 강권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린도의 성도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겠습니까? 그 답은 바울이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도 압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박해하던 사울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기에, 그리고 그 사랑을 직접 넘치도록 받았기에, 고린도의 성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실망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상황이 너무 힘들어 실망하고 계십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맙시다. 예수님을 따라, 바울을 따라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야겠습니다. 사람이 되었던 사명이 되었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J E S U S L O V E S Y O U

섬김의 교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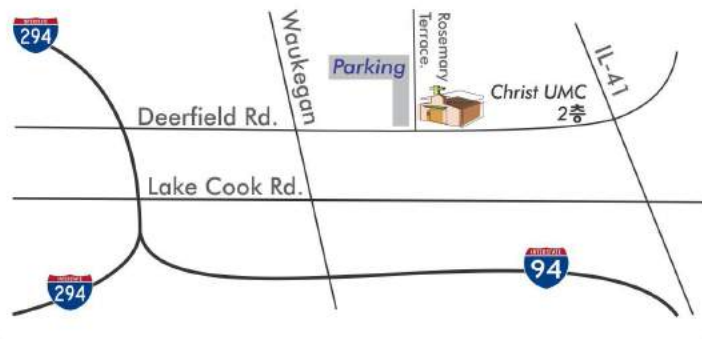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30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5:4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December 2, 2018

기쁨, 화평, 나눔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2018년 12월 9일

4-49호

나눔의 달
대강절 둘째 주일
믿음 성장 / 신앙생활 성숙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당신의 결정이
하나님도 언제나 동의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내려놓으라
당신이 후에 할 일은
머저그분의 사명을
듣는 것이다